

# 시화공단 매립지에 열리는 성공의 열매

스위스식품 안종균 부장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일까.  
순간순간 스쳐가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태여 허겁지겁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위스식품 안종균 부장.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의 진지한 눈빛에는 어떤 모습의 '성  
공'이 그려지고 있을까.



지난 87년 4월 첫삽을 뜬 시화공단 부지 매립공사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만큼 20세기의 한국의 대역사(大役事)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그렇게 매워진 시화공단 부지에는 이미 수백개의 공장시설이 성냥갑처럼 빼곡히 들어서 몇 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빵드비란 상호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스위스식품도 시화공단에 새롭게 터를 잡은 유망 중소기업체 중의 하나다.

## 영업 기획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다

스위스식품 안종균 부장(42)의 '빵드비시대'는 회사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와 궤적을 같이 한다. 아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콘티넨탈식품 연구실과 진로

그룹 외식사업팀이 그사이 그가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며 걸어온 길. 진로 외식사업본부 기획실에 근무하던 지난 91년, 기획실 특유의 책상물림이 감잡혔던 그는 막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던 중소기업체 스위스식품에서 새로운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한다.

"그동안 연구원과 기획실에서 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빵드비에서는 가급적 영업 현장을 누비고 싶었습니다. 식품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제빵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활동적인 제 성격에는 이곳저곳 분주히 돌아다녀야 하는 영업기획 일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로부터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빵드비의 영업 기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이란 열매를 싹틔우는 중이다.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가맹점 개설에 그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

은 곳이 없을 정도다. 신규점포 개설과 영업관리는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한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정성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좌우된다고 믿는 그는 무리한 가맹점 확산을 삼가하는 대신, 이미 개설한 가맹점 관리에 몇배의 관심을 쏟을 만큼 오직 '알맹이 있는' 운영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맹점주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당 부서 대신 일차적으로 그를 먼저 찾는다. 점주들의 방문 요청이 올 때마다 예사로 지방 출장을 나서는 그의 활동반경을 말해주듯 구입한 지 3년이 채 못된 소나타는 주행거리가 벌써 19만 km를 넘어선지 오래다.

###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모습이길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성공의 열매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출세지향형의 성격은 아니다. 차라리 그는 누구보다도 유유자적한 말투와 몸짓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어느새 마흔 둘 중년에 접어들어도 청년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열정 대신 이제 한번쯤 허리를 펴고 주위 풍경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더 아름답게 느껴질 나이가 된 것이다.

“남들보다 꼭 앞서가야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지요. 성공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청년기엔 그저 남을 앞지르기만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보람있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역시 지금도 때때로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무슨 말끝엔가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여전히 분초를 쫓아가며 사무실로, 현장으로 부르듯도록 뛰어다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부질없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한다. 얼핏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거란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인생의 목표를 확인하는 통과제의 같은 것이리라.

“그럴 때마다 혼자서 낚시를 떠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고기 낚는 재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 조용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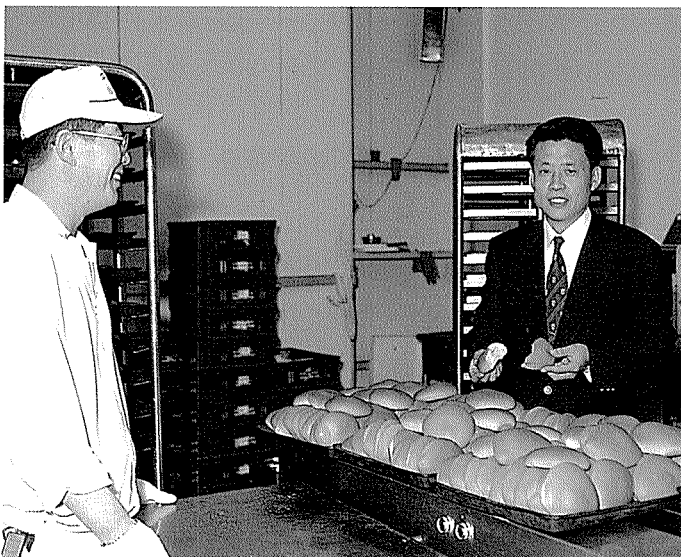
실상 그와 잠시라도 얘기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 못지 않은 업무 열정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짐짓 단전을 피우고 있지만 어쩌면 그야말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그에게선 은근한 자신감마저 풍겨온다. 그런데도 그 여유로움이 가식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따스한 온기 때문이다. 문득 그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를 흔들어보고 싶다는 심술궂은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성체는 견고해 보인다.

### 영원히 간직할 푸른 바다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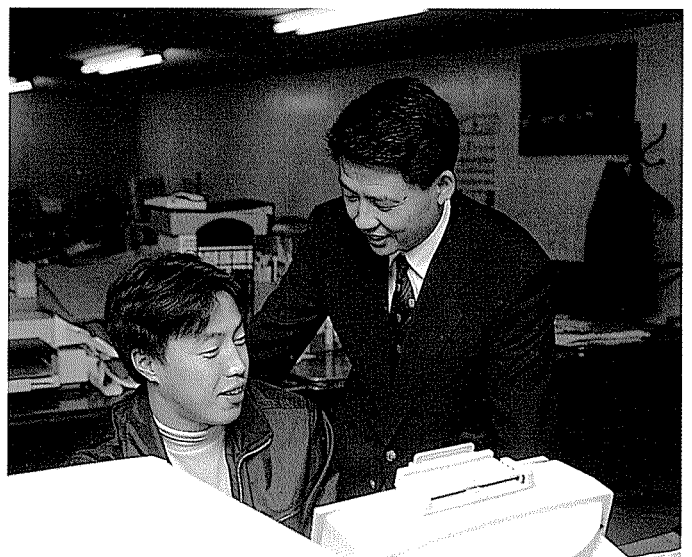
시화공단 매립지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갯내음이 난다. 끝간데 모르게 뻗어있는 광활한 공단 규모에 낮을 빼앗기고 있다가도 문득 한줄기 갯내음에 퍼뜩 이곳이 그 옛날 푸른 파도 넘실거리던 바다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바다는 세월에 묻힌 젊은 날의 열정과 꿈의 흔적이다. 그래서 꿈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육지에 매몰된 바다까지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게 마련이다. 이제는 육지에 갇혀 조그만 동산이 되어버린 '오이도'를 아직도 이곳 사람들이 섬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 또한 땅속에 묻혀진 푸른 바다를 기억하는 한, 젊은 날 꿈꾸었던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을 것이다. [2] <글/이종원>



▲ 식품공학도 출신인 안종균 부장은 제빵 이론에 있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 한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정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좌우된다. 가맹점 관리가 그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